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 연구

최배은*

1. 서론
2. ‘직업소년’의 양상
3. ‘직업소년’에 대한 양가적 시선
 - 3-1. 피해자(희생자)이자 가해자(경쟁자)
 - 3-2. 피보호자이자 보호자
 - 3-3. 열등감이자 우월감
4. 무기력한 어른들의 대리자

국문요약

일제 강점기의 청소년은 오늘날과 달리 ‘노동하는 존재’였으며, 그러한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직업소년’이었다. 당대 형성된 근대 청소년소설에서도 ‘학생’보다 ‘직업소년’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가들의 모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의 양상과 그에 대한 서술 태도를 분석하여 당대 청소년소설 작가들이 제시한 청소년상의 모순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년은 ‘애호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이상과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의 모순에서 ‘직업소년’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생겨난다. 그들은 직장에서 사업주나 다른 어른 노

*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시간강사

동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가해자(경쟁자)로 인식되지만, 서술자는 주로 어른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동정적 어조로 서술함으로써 소년을 피해자(희생자)로 인식하도록 한다. 가정에서 직업소년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부모의 부재 때문에 오히려 보호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서술자는 직장 이야기에서 직업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와 달리, 가정 이야기에서는 직업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한다. 또 직업소년은 학생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나, 서술자는 당시 학교교육의 환상과 허위를 지적하며 직업소년이 학생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역설한다.

요컨대 근대 청소년소설에 제시된 ‘직업소년’은 사회의 희생자이지만,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한 처지로 합리화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보호와 성장의 문제보다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사명감 있게 해 나갈 과업이 부여된다. 한마디로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상’은 무기력한 어른들의 대리자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일제 강점기, 청소년소설, 직업소년, 소년애호사상, 민족모순, 계급모순, 양극적 시선, 어른들의 대리자)

1. 서론

오늘날 ‘청소년’¹⁾은 주로 학생이자 소비의 주체로 인식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돈을 버는 청소년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개인의 특수

1) 본고에서 ‘청소년’은 대략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시기로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한 처지로 여겨지고, 어떤 청소년이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차적 과업으로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상'²⁾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청소년이 형성되던 일제 강점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직업소년'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학생보다 돈을 버는 청소년이 훨씬 많았다. 그때부터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 다니며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의무교육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교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3·1운동 이후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보통학교 입학률도 증가하지만³⁾, 월사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그쳤다. 따라서 아동기에 학교를 다녔더라도 10대 중 후반의 청소년기에는 학교를 떠나 집안의 농사일을 돕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청소년소설⁴⁾은 주로 청소년을 독자로 삼고, 그들의 삶을 제재로 하여 창작되므로 당대 청소년의 신분이 반영된다. 근대 청소년소설⁵⁾에선 현

2) '청소년상'이란 호른슈타인이 제안한 개념으로, 여기서 '상' 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상(Weltbider)' 논의에 기댄 것이다. 하이데거는 세계상을 세계에 대한 상-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으로 파악하는 행위 자체, 즉 '상을 가짐'으로 정의한다. 전상진,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像)」,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2006, 12쪽 참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상'은 청소년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로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허용할 것과 금지할 것 등을 규정하는 바탕으로서 그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결정된다.

3)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504-505쪽.

4) '청소년소설'이란 청소년기(13-18세)의 삶이나 관심을 제재 및 주제로 하여,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서술로 되어있는 소설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을 독자로 전제하고 창작된 소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제재 및 주제, 서술이 청소년이 읽기에 적합하면 청소년소설로 볼 수 있다.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47-48쪽.

5) '근대 청소년소설'이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어 당대 청소년 계층에게 널리 읽혔던 소설을 말한다. 당시에는 주로 '소년소설', '소년소녀소설'로 일컬어졌고, 작품의 주인공 및 실제 독자는 주로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계층이다. 미성년을 지칭하는

대와 달리, 학생보다 직업소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도 일차적으로 그러한 사회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가치관 및 욕망이 작용하여 이룩된 세계이고, 또 그렇게 형성된 ‘청소년상’이 현실의 청소년을 규율하는 이

‘소년’, ‘아동’, ‘어린이’, ‘청년’, ‘청소년’ 등의 용어가 그 계층이 분화되고 형성되는 일제 강점기 동안 혼용되고, 지금과 다르게 쓰이기도 하며 여러 혼란을 빚어왔지만 근대 계몽기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 신문, 잡지, 문학 작품 등에 발표된 미성년 담론(‘소년’, ‘소녀’, ‘아동’, ‘어린이’, ‘청년’, ‘청소년’이 쓰인 담론)을 분석하면 청소년이 청년과 어린이의 탄생 과정에서 청년의 소년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간략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전 근대기부터 ‘나이가 어린’의 형용사적 의미로 쓰였던 ‘소년’은 근대 계몽기부터 신세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며 일제 강점기 동안 ‘청년’, ‘아동’, ‘어린이’ 등의 미성년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10년대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선 이들이 자기 세대는 ‘청년’으로, 그들의 아우 세대는 ‘소년’으로 지칭하면서 1920년대 초반부터 ‘소년’은 ‘청년’과 구별된다. 그리고 192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자들이 소년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소년문예운동의 정치성을 강화하면서 ‘소년’을 10세 이하의 유년과 구분하자고 주장하며 ‘소년’은 ‘유년’과도 구별된다. 또 이 시기는 ‘소년소설’이 가장 많이, 활발히 창작되는 시기이면서 주인공의 연령이 16-18세인 경우가 많다.

요컨대 전 근대 사회에서부터 쓰이던 ‘소년’이란 기표는 일제 강점기에 미성년의 분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아이(어린이, 유년)에서 어른(청년) 사이의 시기(13-18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이란 기표는 192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여 일제 말기에 그 용례가 증가하는데 오늘날과 달리, ‘청년’과 ‘소년’을 합쳐 이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부족한 전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 대상의 노동 인력을 소년 계층에까지 확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년소설은 소년운동의 주요 사업인 소년문예운동의 일환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청년 지도자들이 ‘소년’을 사회운동의 주체로 길러내기 위한 목적성이 두드러진 소년소설은 당시 유년 대상의 동화와 구분되며 주로 현실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서사화하고 있다.

위의 사항은 최배은의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Ⅱ. 근대 ‘청소년’과 ‘청소년소설’의 형성(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통용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소설의 기원을 일제 강점기로 보고, 당시 창작된 소년소설을 근대 청소년소설의 범주에서 논한다.

미지로 기능한다. 특히 근대 청소년소설의 작가들은 거의 소년운동 지도자로서 독자들과 사제 관계를 형성하며, 청소년에게 사회 모순과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즉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은 당시의 직업소년을 반영하는 동시에 작가의 의도와 욕망에 의해 변형된 제3의 존재⁶⁾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과 다른, 청소년의 존재 양식을 살피는 길일 뿐 아니라 당대 청소년에게 부여된 사회적 과업⁷⁾을 확인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삶에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소설 연구에서 '직업을 가진 청소년'에 주목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일란의 『김남천 소설 연구-해방 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⁸⁾와 최배은의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⁹⁾가 있다. 주일란은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소년'의 기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직업 생활을 세속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함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소년행〉의 봉근이 기출한 뒤에 종사했던 직장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 그 근거가 부족하고 '직업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보기 어렵다. 최배은은 일제 강점기 신문, 잡지 등의 사회 담론과 근대 청소년소설을 대상으로 근대 청소년과 청

6) 당대 현실의 직업소년 및 그러한 소년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작가의 의도와 욕망에 의해 변형된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 소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현실의 단순한 반영론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소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민족주의 및 계급주의를 확인한 데 그친 경향이 있다.

7) 발달심리학의 생애주기 이론에서, 인간의 생애를 연령별 단계로 나누고 각 시기에 성취해야 할 과제로 부여된 일을 말한다.

8) 주일란, 『김남천 소설 연구 - 해방 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9)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소년소설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그 이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난’과 ‘노동’이 일제의 실용주의 식민화 교육에 대항하는 도덕주의를 구현함을 고찰한다. 일제 강점기 사회 담론과 청소년소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이지만, ‘직업소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계층을 독자적 존재로 발견하고 그들을 사회운동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중시했던 일제 강점기에, 청소년의 존재 방식이 오늘날과 달리 ‘직업소년’이었음¹⁰⁾에 주목하고,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의 양상과 그에 대한 서술 태도를 분석하여 당대 청소년소설 작가들이 제시한 청소년상의 모순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근대 청소년소설 가운데 직업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이며, 특히 직업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¹¹⁾ 2에서는 먼저 ‘직업소년’의 양상을 검토한다. 근대 청소년소설에서 ‘직업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피고,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직업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특질¹²⁾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을 당대 청소년의 노동 실태와 비

10) 일제 강점기에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청소년상’ 및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직업소년’이었음에 대한 논증은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38-43쪽을 참고할 수 있다.

11) 구체적인 작품 목록은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주로 인용하는 작품은 여기에서 분석하는 직업소년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근대 청소년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되었다. 즉 그것들은 근대 대표적인 소년잡지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소년』 등에서 활발히 소년소설을 발표한 권환, 김영팔, 성경린, 최병화, 현덕 등의 작품과 1930년대의 기성문단에서 주목받았던 박태원과 안희남의 작품들이다.

12) “작품 속에서 인물은 특질(特質)들의 총체이다. 특질이란 지속적인 속성 또는 자질로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것이 보다 의미를 지닌다. 그

교한다. 3에서는 '직업소년'에 대한 인물과 서술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직업소년'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고찰한다. 소설의 의미를 형성하는 주요 공간인 가정, 직장, 직업소년의 내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4에서는 앞선 논의를 총괄하여 근대 청소년소설에서 당시 직업소년에게 부여된 사회적 과업의 의미를 밝히고 비판한다.

2. '직업소년'의 양상

'직업소년'은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일제 강점기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이다. 그것은 '직업'과 '소년'의 합성어로서 직업을 가진 소년을 일컫는다. '직업남성'이나 '직업청년'이란 말이 잘 쓰이지 않던 것으로 보아, '직업소년'은 '직업여성'처럼 직업이 사회적 과업으로 부과되지 않던 계층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생겨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서 대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일회적인 일과 구분된다. 따라서 노동하는 청소년이 등장하더라도 노동의 성격이 부모를 보조하는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일 경우, 그를 '직업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소년'은 오늘날 남성만 가리키지만 일제 강점기 때에는 남녀를 대표하는 의미로도 쓰였기¹³⁾ 때문에 '직업소년'의 범주에는 직업을 가진 남녀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동안 창작된 청소

것이 모이고 종합되어 관심, 욕망, 윤리적 원칙 등의 복합체, 곧 '성격'을 이룬다."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200쪽.

13)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177쪽.

년소설 325편¹⁴⁾에서 직업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은 약 141편(남: 116편, 여: 25편)¹⁵⁾으로 약 43%를 차지한다. 학생이 등장하는 소설은 약 95편으로 약 29%를 차지한다. 또 학생 등장 소설이더라도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을 그리며 이후 직업소년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제 면에선 위 비율보다 직업소년의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직업소년과 학생의 교집합을 형성하는 ‘고학생’이 등장하는 소설은 12편 정도¹⁶⁾이다. 직업소년은 일제 강점기 동안 꾸준히 등장하지만, 통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가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그 외의 시기엔 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업소년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직공(인쇄, 제사, 방직, 철, 고무공장 등), 농부, 장수(성냥, 신문, 비옷, 두부, 만주, 빵, 가마, 군밤 등), 점원(우동가게, 서점, 잡화점, 의복가게 등), 급사(신문사, 여관, 학교, 회사 등), 배달원(우유, 신문, 그릇), 머슴, 식모(아이보개), 나무꾼, 안내원(승강기, 관광, 버스), 곡마단 모기꾼, 광부, 석공, 어부, 봉투 붙이기, 폐지 수집 등’의 주로 생산직과 서비스직이다. 그것을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부록 참고.

15) 이 글 ‘부록’에 구체적인 작품 목록을 제시하였다.

16) 방정환, 〈금시계〉, 『신청년』(1919. 1), 〈졸업의 일〉, 『신청년』(1919. 12), 〈영호의 사정〉, 『어린이』(1923. 10·11·12), 〈동무를 위하여〉, 『어린이』(1927. 2), 김순옥, 〈남매의 운명〉, 『소년계』(1927. 3), 안운과, 〈달도 운다〉, 『별나라』(1929. 4·6·10), 이정호, 〈귀여운 희생〉, 『어린이』(1929. 2), 연성흠, 〈창수의 지각〉, 『어린이』(1929. 10), 이태준, 〈눈물의 입학〉, 『어린이』(1930. 1), 최병화, 〈눈보라 치는 날〉, 『어린이』(1930. 12), 〈내 힘과 땀〉, 『별나라』(1934. 1), 홍복원, 〈수첩〉, 『신소년』(1932. 9·10·11).

〈표1〉

직업	직공	농부	장수	급사	점원	머슴	배달	식모	나무 꾼	안내 원	묘기 꾼	광부	기타
비율	24.6	17.3	13.3	7.3	6.0	5.3	4.6	4.6	4.0	2.6	2.0	1.3	6.6

위에서 보는 것처럼 직업소년들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공업, 농업, 상업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아이보개, 식모, 곡마단 묘기꾼, 승강기 안내원, 버스 안내원'은 주로 소녀들의 직업이고 나머지 직종에선 소년들의 비중이 크다. 또 '직공'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제시되는 한편, '곡마단 묘기꾼'은 납치나 인신매매 등에 의한 노예적 직업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 소설 속 '직업소년'의 노동 양상은 당대 청소년의 노동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2〉와 〈표3〉은 1930년의 〈조선국세조사보고〉로부터 얻은 통계¹⁷⁾로, 〈표2〉는 전체 유업자에서 15-19세까지의 청소년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고, 〈표3〉은 각 업종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2〉

업종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가사 사용
비율	82.2	1	0.23	6.2	4.45	0.9	0.64	1.64

〈표3〉

업종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가사 사용
비율	14.5	11.1	9.1	14.4	10.7	11.7	4.8	18.4

17)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112쪽 참고.

〈표2〉를 볼 때, 1930년대 청소년이 많이 종사했던 업종은 농업, 공업, 상업 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표3〉을 통해서 당시 산업 활동에 청소년의 노동력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표1〉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소설에서 차지하는 직종 비율은 공업, 농업, 상업 순인데 실제 비율은 농업, 공업, 상업 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시 청소년 소설이 대개 도시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던 점과 사회주의 해계모니 아래 창작된 소설들이 계급모순의 폭로와 대안을 주로 ‘공장 노동’에서 찾았던 전략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3〉에 나타나 있듯이 업종별 청소년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가사사용’인데 소설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머슴(5.3)’과 ‘식모(4.6)’를 합해도 농·공·상업의 비중엔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근대 청소년소설에서 소녀 주인공의 비중이 낮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가사 노동은 주로 소녀들의 몫이었는데 ‘직업소년’ 소설에서 소녀 주인공은 17.8%뿐이 차지하지 않으니 전체 직종 비율에서 가사노동의 비중이 크지 않게 된 것이다.¹⁸⁾

요컨대 근대 청소년소설에서 ‘직업소년’ 서사는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작가들의 이념과 욕망에 의해 변형된 서사이다. 그러한 점은 인물의 사회적 특질과 심리적 특질로도 드러난다. 소설에서 직업소년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그의 사회적 특질 때문이다. 즉 그들은 소년소녀가장이고 빈곤소외계층으로서 생계를 위해 노동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학하며 자신이 번 돈을 상급학교 진학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앞의 통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드물다. 이러한 특질은 당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

18) 노동하는 소녀가 등장하는 25편의 소설에서 식모는 직공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 개인적 욕망을 앞세우거나 불량행위를 하는 청소년은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 소설에 존재하는 직업소년은 거의 자신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이타적 자세로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심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작가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소년 주인공의 품성을, 청소년 독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한 작가의 교육적 의도와 욕망이 앞선 결과로 볼 수 있다.

3. '직업소년'에 대한 양기적 시선

'직업소년'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과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이다. 근대의 성장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생애주기 이론에 의하면, 미성년기는 어른과 나란히 직업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체험을 쌓으며 인성을 계발하고 어른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이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이상적 과업은 부르주아 가정의 자녀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의무교육이 보장되고 아동노동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 가정의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값싸게 팔아야 했다. 즉 '직업소년'에서 그 말을 구성하는 '직업'은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며, '소년'의 이상적 과업과 배치되어 그 자체로 청소년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와 불우한 환경을 표상한다. 이러한 '직업소년'은 근대 소년애호사상에 기반한 소년운동¹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소년애호사상

19) '소년운동'은 1920년대 초반 천도교 소년회 조직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소년인권운동과 소년 대상의 인성계발·민족의식 교육운동을 의미한다.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14쪽

에 의하면 직업소년은 구제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벗어나야 할 신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그러한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대해 근대 청소년소설 작가들은 어떤 상상적 해결을 모색했을까?²⁰⁾ 그것은 ‘직업소년’의 외부와 내면에서 그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관점의 제시로 모색되었다. 즉 ‘어른들과 학생들은 직업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직업소년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은 주로 직장, 가정, 내면에서 ‘직업소년’이라는 처지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이고, ‘직업소년’을 대하는 인물이나 서술자 간의 상반된 태도를 부각시키며 의미를 강화한다. 근대 청소년소설의 작가들은 대부분 소년운동 지도자로서 당대 청소년 독자를 내포 독자로 하여 선생님의 태도로 서술한다. 즉 실제 작가와 서술자의 근친성이 강하여 서술자의 시선과 목소리로써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한편 근대 청소년소설은 리얼리즘을 지향하며 현실의 인물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직업소년에 대한 인물의 태도는 당대 직업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청소년소설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인물과 서술자의 직업소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소설에 제시된 ‘직업소년상’을 고찰한다.

20) 이것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서사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서사는 “사회적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상징 행위”이다.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77.

3-1. 피해자(희생자)이자 가해자(경쟁자)

직업소년 이야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직업소년은 직장의 상사(손님)나 동등한 지위의 어른 노동자와 갈등한다. 직업소년의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어른들의 이해관계와 대립되어 경쟁 구도를 낳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른 인물은 직업소년을 다른 어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의 존재로 여긴다. 즉 그에게 나의 몫을 빼앗길지도 모른다(직업소년은 나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흥정하거나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대한다. 이러한 인물의 태도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르면 합리적인 태도이지만 서술자는 인정, 도덕의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태도로 서술한다.

〈마지막 우슴〉(권환, 1926)에서 부잣집 주인은 비웃장수 갑두와 흥정하다가 마침내 어른 비웃장수에게 비웃을 산다. 갑두는 고아이며 어린 누이를 돌보아야 하는 소년가장이다. 새해 첫날 누이에게 가래떡이라도 먹이기 위해 비웃을 들고 나섰지만 주인은 비웃의 신선도를 따지며 값만 깎고 사지 않는다. 그러다 갑두가 비웃을 원가에라도 팔려고 하는 순간, 어른 비웃장수가 나타나 원가보다 싼 값을 제시하며 판다. 즉 이 소설에서는 생계를 위해 비웃을 팔려는 직업소년의 욕망이 자기 이익을 위해 비웃을 싸게 사려는 어른과 생계를 위해 비웃을 팔려는 다른 어른의 욕망에 의해 패배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갑두의 초점에서 이러한 어른들의 행위를 욕심 사납고 알뜰하게 느껴지도록 서술하여 직업소년을 몰인정한 어른들에 의한 피해자로 제시한다. 한편 주인집의 행랑어멈은 주인이나 어른 비웃장수와 달리, 갑두를 동정하고 도와준다. 갑두는 행랑어멈이 준 돈으로 누이를 먹일 떡을 사오지만 배고픔에 지친 누이는

이미 죽어 있다. 이러한 결말 때문에 갑두와 흥정하고 경쟁한 어른들의 태도가 더욱 잔인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이야기 구조는 비슷하지만 어른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각시킨 이야기로 <백삼포 여공>(현동엽, 1931)이 있다. 주인공 순성은 생계를 위해 삼을 깎아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욕망이 삼을 깎는 다른 어른의 욕망과 대립한다. 백삼포 공장에선 표찰(삼을 깎도록 허락된 표시)을 가진 노동자들이 무작위로 덤벼 자기가 깎을 삼을 챙기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이 더 심해진다. 게다가 순성은 표찰도 없이 삼을 차지하여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내 몫을 가로채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년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있다가 마구 달라붙어 순성이 삼섬을 붙잡은 손등을 갈퀴고 머릿보를 잡아팽개치고 허리를 끌어 잡아당기고……이렇게들 여럿이 떼려고 싸웠다. 그래도 순성은 찰거머리 달라붙듯 삼섬을 물고 늘어졌다. 바로 이때다. 누런 복장 한 감독 놈과 빨간 테 두른 순사가 표지 조사를 하러 다가왔다. 그중에 여우 같은 계집년 하나가, “여보쇼, 이 애는 표지도 없이 넘적게 앉아 깎아요.” 하고 담박 ‘스파이’ 노릇을 하였다.²¹⁾

위의 인용처럼 순성과 경쟁적으로 삼을 깎는 어른 노동자들이 순성의 삼 섬을 빼앗아 차지하려고 폭력도 행사하지만 순성이 물러나지 않자 감독관에게 이른다. 감독관도 채찍을 휘두르며 표찰이 없는 순성을 내쫓으려 하나, 순성은 악착같이 버텨 끝내 삼도 깎고 돈도 받아온다. 그리하여 순성이 그들과의 대립에서 성공한 듯 하지만 그날의 여파로 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결국 순성도 패배자이다. 이러한 결말 역시 순성과 갈등했던 인물들을 순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들로 여기게 하고, 서술자는 “그년들”, “감독 놈”, “여우같은 계집년”처럼 비속어도 서슴지

21) 현동엽, <백삼포 여공>, 『신소년』, 1931.10, 34쪽.

않으며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이들을 지칭한다. 한편, 순성을 동정하는 어른 노동자가 등장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조력자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직업소년의 직장 이야기는 직업소년이 일터에서 어른 노동자나 상사(손님)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이야기로 직업소년에 대한 동정심을 극대화하며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어른이나 사회 현실을 비판한다. 여기에서 직업소년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당시 직업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직업소년이 다른 노동자나 사업주(손님)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한 명의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당대 직업소년의 육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소년잡지에서는 직업소년들의 직장을 방문하여 소년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노동실태를 폭로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하기도 했다.

감독하는 이압헤서는 그저 고양이압헤 쫓겨이지요 …(중략)… 더구나 녀름날 가튼때는 습귀가 드러오면 담배가 썩는다구 어디 문이나 열어놓게합닛가? 숨이 막히고 속이 타서 죽겠지요. 매일 열한두시간을 하는대도 혹시 병이 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게 되면 돈을 감하고 벌을 써우고 흑누가 철없시 담배를 넛코 나가다가 몸을 뒤질 때 들키기만 하면 매를 죽도록 맛고 내어 쫓긴답니다 …(중략)… 『그러나 엇지합닛가? 조선사람된 죄이지요. 하여간 과히 숲허마시고 늘 맘에 위로를 바드시고 행복스러운 날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중략)… 『퍽 깃분니다 그러나 과히는 쓰지 마세요 큰일납니다.』²²⁾

위의 글은 『어린이』기자가 연초직공 소녀 한삼녀, 배명자와 인터뷰한 기사이다. 공장 감독은 소녀 직공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공장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가 발각되면 가차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 대

22) 『직업소년들의가지가지설음』, 『어린이』, 7권 4호, 1929.5.20, 14쪽.

한 기자의 답변은 다소 조심스럽다. 기자는 소녀 직공의 고통이 조선 민족의 식민지 현실 때문임을 암시하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위로할 뿐이다. 또 소녀들도 과히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공장 측이나 일제의 검열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설의 서술자는 현실의 기자보다 훨씬 대담하게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직장의 어른들을 비판하면서 직업소년을 똑같은 노동자로 대하지 말고 동정하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공정한 경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소설의 의미는 소년애호사상을 전제로 합리화되고 있지만, 어른들의 이기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의 차원에서 제기하므로 사회모순을 근본적으로 폭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설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영수증〉(박태원, 1933)은 ‘힘 세고 못된 부자 어른(주인) / 힘없고 착한 소년(노동자)’의 단순 도식을 넘어 직업소년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와 허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려 주목된다. 15세 고아 소년 노마는 우동 가게에서 일하지만 석 달째 월급이 밀려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장과 노마는 적대적 관계로 서술되지 않는다. 사장이 이기적 욕심에서 체불시킨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새로 생긴 우동 가게에 손님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동 가게의 폐업 날, 사장은 노마에게 우동을 끓여 먹이고 그날의 수입을 주며 외상장부를 넘긴다. 외상값을 받아 밀린 월급을 대신하라는 것이다. 노마는 오히려 사장을 동정하며 다음 날부터 열심히 외상값을 받으려 다닌다. 하지만 단골손님이었던 오 서방은 외상값을 주지 않고, 노마를 피해 다니다가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만 역시 오 서방을 만날 수 없었던 날, 노마는 눈물을 흘리며 영수증을 찢어버린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영수증이 오 서방 같은 자를 만나면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설에서도 당시 직업소년의 고단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부각시키지만 갈등 관계를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색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3-2. 피보호자이자 보호자

직업소년의 직장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직업소년은 물질적으로 결핍된 가정환경과 갈등하며 부모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부모는 없거나 있어도 아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돌보아야 할 처지이다. 그런 경우, 편부보다 편모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직업소년을 피보호자이자 보호자로 대하는 양가적 태도를 갖는다.

(가) 영식을 깨우는 것이 당신의 살땀을 띄여가는 것가티 압하지만 안 깨울 수도 업는 형편이니까 몇 번이나 손이 아들의 몸에 다엿다가도 참아 그 곤이 자는 잠 저것이 남과 가티 학교에 갈 나희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른도 하기가 쉬웁지 안은 로동을 해야 이러케 살면 무엇을 할가 하고 울어도 보왓스나 그러나 모진 사람의 목숨을 사람인 그 자신이 임의로 할 수는 도저히 업섯습니다²³⁾

(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어머니는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미를 부리지 않게 하고 월회를 일어나게 하나하고 걱정을 하였다. 「애, 일어나거라!」「일어나!」 아들겸 딸겸인 월희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흔들었다 ... (중략) ... 월희는 퍼붓는 비를 맞고 가면서 이 비를 맞고는 내일부터 꼭 지독하게 감기라도 들렸으면 하고 바랐다. 감기를 앓아 누우면 우선 싫은 차고에

23) 김영팔, <소년직공>, 『어린이』, 1929.3, 36쪽.

나가지 않고 보기 싫은 감독, 미운 손님, 마음 맞지 않는 동무 이런 것들도 보지 않겠고 …(중략)… 월희는 누워서 이것을 들으려면 마음이 끝없이 슬퍼지고 아무리 철없는 소녀일지나 집안살림의 근심이 가득한데다가 한 분 어머니를 두고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²⁴⁾

(가)는 <소년직공>(김영팔, 1929)에서 아들을 공장에 보내기 위해 깨우는 어머니의 심리를 서술한 부분이고, (나)는 <병든 소녀>(안희남, 1933)에서 버스 안내양 월희가 아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자 불안해하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어머니들은 고단해하며 출근하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매우 안쓰러워한다. 그들을 더 재우고 편히 쉬게 하고 싶다. 이러한 심리에서 어머니들이 직업소년을 아직 자기 품에서 보살펴야 할 미숙한 자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결국 소년소녀를 일터로 가라고 깨운다. 그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식들을 보호하고 싶은 욕망은 생계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기대게 된다. (나)에서 어머니가 딸을 “아들겸 딸겸”으로 여기는 심리는 이러한 양가적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직업소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의 영식은 어머니의 “영식아! 어서 공장에를 가야 돈을 벌지 안니?”하며 깨우는 소리를 “어서 공장에를 가야 우리들이 먹고 살지를 안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나)의 월희도 직장에 가기 싫어 병이 나고 싶었던 마음이 막상 현실이 되자, “집안 살림의 근심이 가득”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생계의 책임을 진다.

24) 안희남, <병든 소녀>, 『신동아』, 1933.6. 안승현 엮음, 『일제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3』, 보고서, 1995, 67-74쪽에서 재인용.

서술자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운 태도와 동정적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직업소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화하여 직업소년들의 가정 보호 역할을 절대화한다. 그리하여 어른보다 더 강한 희생정신과 책임감으로 가족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직업소년을 만들어낸다. 물론 현실의 청소년들이 모두 소설 속 주인공처럼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훌륭히 수행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은 근대 청소년소설 세계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해뜨기 전〉(성경린, 1929)의 소년 직공 순석은 가장 역할을 하지만 형이 있는 둘째이다. 형은 인물로서 등장하지 않고, 친척 아저씨와의 대화에서 잠깐 언급될 뿐이다. 제한된 정보로 추측해보면, 형은 가장 역할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은 근대 청소년소설에서 보기 힘들다. 순석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동생들에 대한 자애로 가득 차 있어서 동생들은 마치 아버지에게처럼 순석에게 기대고 응석을 부린다.

〈경순의 병〉(성경린, 1932)에선 이러한 역할이 보다 극대화되어, 고아 소년 명환이 갓난아기 동생을 키우고 있다. 그의 직업은 금강산 관광 안내원인데 동생을 돌보느라 일도 자주 나가지 못한다. 이 소설은 한마디로 14세 때부터 4년 동안 갓난아기를 돌본 직업소년의 양육분투기이다. 아기가 자주 아프지만 약은커녕 끼니거리를 구할 돈도 없고, 일거리가 생기더라도 아픈 아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을 대변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양녀로 데려가겠다는 노부부의 청을 거절한 것이다.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소년의 의지를 서술자는 바람직하고 훌륭한 태도로 서술하지만,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망은 제시되지 않은 채 끝을 맺는다.

결말 부분에서 명환은 오랜만에 생긴 일거리도 관광객들의 식중독 때

문에 취소되어 절망에 빠진다. 그때 명환에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준 것은 미약한 어른의 작은 도움이다. 우연히 만난 아랫마을 고 서방이 자기도 어려운 처지이면서 명환에게 일원을 빌려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년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너무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도움이라 소설은 끝나도 걱정은 남는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직업소년이 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못지않게 가정에서 부여받은 지위도 가혹하다. 직업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력의 측면에서 보면, 직장에서보다 가정에서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은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가족의 경우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업소년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직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가정에서는 직업소년에게 어떤 난관과 역경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3-3. 열등감이자 우울감

직장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에서 제시한 직업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은 주로 직업소년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직업소년 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직업소년을 동정과 보호의 시선으로 대하도록 하고, 직업소년 자신에게는 가정의 보호자로서 사명감을 갖게 한다. 요컨대 직업소년을 둘러싼 직장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직업소년 자신과 타자가 지녀야 할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업소년을 바라보는 눈에서 가장 극복해야 할 지점은 소년 자신의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직업소년'의 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녀야 할 시기에 다니지 못하고 직업을 갖게 된 소년이므로 그들은

자신을 '학생'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그들의 직업이 소질과 역량을 계발하는 일과 무관하여 미래를 위한 지식과 체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직업소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순 생산직과 서비스직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직업소년들은 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월사금이 없어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등장 소설이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갈등과 곤경을 그린 소설들이 많아서 직업소년 소설과 관련이 깊다.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청소년들은 자기와 달리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무들을 동경하는 한편, 직업소년의 신분을 부끄럽게 여긴다. 특히 단짝 동무와 진로가 달라지면 우정엔 금이 가고 직업소년의 열등감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한 갈등을 그린 대표적 소설로 <잃었던 우정>(현덕, 1939)을 들 수 있다. 주인공 소녀 명희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 승강기 안내원으로 취업하지만 단짝 동무 속자는 고등여학교에 진학하여 교복을 입고 다닌다. 학생의 신분을 공표하는 교복은 오늘날 감시와 구속의 상징으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학생이라는 특권층을 과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교복 대신 직장 유니폼을 입은 직업소년들은 또래 학생들의 교복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유니폼을 부끄럽게 여겼다.

여학교 교복에 번쩍이는 교표를 단 가슴을 내밀고 섰는 그들 앞에 자기의 백화점 복장을 한 초라한 꼴이 부끄럽고 계면쩍었습니다. 그 다음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명희는 「올라갑니다」소리를 하기가 또 좀 부끄러웠습니다.²⁵⁾

이러한 열등감을 지닌 명희는 근무지로 놀러온 숙자가 자신의 처지를 조롱했다고 오해하고 절교를 선언한다.

그렇게 처지가 달라지며부터 자주 찾아오던 숙자가 발길이 들끓어지고 요즘으로 영 오질 않아 명희는 은근히 야속하게 생각하던 터입니다. 명희는 누구보다도 그 숙자에게 없슨여감을 당하는 것이 더욱 분하다 하였습니다. 하여튼 숙자는 명희를 상대로 웃고 떠들던 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한편이 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자기를 그렇게 우서 주기 위하여 숙자는 같은 학교 아이들을 끌고 와 일부러 승강기를 탄 것이 아닌가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²⁶⁾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명희는 숙자와 동행한 학교 친구들의 장난과 웃음을 자신에 대한 놀림과 비웃음으로 오해한 것이다. 결국 숙자가 급성 폐렴에 걸린 명희를 자기 아저씨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데려가 구하고 나서, 명희는 오해를 풀고 둘의 우정은 더 깊어진다. 그런데 직업소년의 열등감이 청소년 자신의 내적인 결핍감에서만 기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진학한 또래 동무들이나 학교 선생님, 동네 어른들 등이 학생 신분에 비해 직업소년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했다. 그래서 <내 힘과 땀>(최병화, 1934)에서처럼 서술자가 독자들을 향해 직업소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훈계하기도 한다.

무석이는 이갓치 자기의 힘과땀의 값으로 지나가는 동무이다. 단돈 한푼이라도 부모님이 안 주시면 도화지나 습자지도 못 사 쓰는 너의 들노써 집안살림을 도움고 자기의학비까지 대여쓰는 무석이를 신문 장수라고 놀리고 업수히 역인다는 것은 아모리 철이 엷는 너이기로서니 어리석은 짓이라 아니 할 수 업다. 이제 부터는 무석이를 대할 때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무석이의 괴로운 로동을 위로하여 줄 것을 이저서는 안 된다.²⁷⁾

25) 현덕, <잃었던 우정>, 『소년』, 1939.10, 38쪽

26) 현덕, <잃었던 우정>, 『소년』, 1939.10, 39쪽.

위의 말은 소설의 첫 부분에 “누가 무석이더러 신문장수라고 별명을 지어서 놀리고 또 낮추보고서 업수히 역이느냐 말이다”라고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이야기의 서술 동기가 무석을 누군가 놀린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행동을 훈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무석이가 “돈에 욕기가 나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피화자의 처지와 비교하며 동정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이른다.

그러나 직업소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논리가 필요했다. 즉 ‘직업소년’이 ‘학생’보다 인생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유리한 신분이라는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대 작가들은 그것을 ‘노동’의 의의와 야학에서 찾았다. 일제 강점기의 ‘학교’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어와 민족문화를 배제하고 일제의 실용주의 식민화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직업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생의 신분을 버리고 직업소년의 길을 택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오빠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 두지 않았나? 성적도 남에게 첫째를 빼앗겨 본 적이 없었지! 그러나 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오랫동안 정들인 학교를 퇴학하고 농군이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훌륭하게 되려면 반드시 학교에만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은 까닭이다.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밥과 같다 …(중략)… 땅을 파는 농군 뿐이 아니라 사람의 농군이 될 터이다. 그리고 세상의 밥이 되겠다. 밭을 갈면서 마음도 갈겠다. 영희야! 그런 쓸 데 없는 생각을 말고 나와 같이 농군이 되자”²⁸⁾

27) 최병화, <내 힘과 맘>, 『별나라』, 1934.1, 37쪽.

28) 박승진, <산기슭>, 『어린이』, 1929.9, 42쪽.

위의 글은 〈산기슭〉(박승진, 1929)에서 영희의 오빠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과 진학을 못 하여 서러워하는 영희를 타이르는 말이다.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농군이 되었다. 장학금을 탈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오빠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보다 농사 짓는 일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농군이 사람에게 없어서 안 되는 밥과 같다며 농군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노동의 의미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 학생 신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을 깨뜨리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따져 보면서,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야학을 통해 민족어와 민족의식을 배울 수 있는 직업소년이 학생보다 더 우월하다는 관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학생이 등장하더라도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들이 만든 빈민들을 위한 학교나 직장의 소년부 산하에 마련된 야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이런 학교의 특징은 월사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용품이나 책을 제공하며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갖게 하는 이념 교육을 한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고, 학교나 선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생략된 채 서술자의 관념적 논평으로 제시되어 대안으로 제시되기에 한계가 있다.

4. 무기력한 어른들의 대리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은 애호의 대상으로 발견되지만, 착취의 대상으로도 발견된다. 성인보다 미약한 그들의 노동력은

값싸게 이용할 수 있고, 다루기 쉬우며 노동쟁의 등을 일으킬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의 계약만으로 값싸게 사오거나 납치하여 노예적으로 부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²⁹⁾ 따라서 유소년노동에 대해 금지하고 감시하는 법과 기구가 마련되기 전까지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비인간적인 환경과 처우 속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는 본국에서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 말 전시체제에는 청소년 고용기구를 마련하여 국가 권력이 나서서 유소년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청소년은 오늘날과 달리 '노동하는 존재'였으며, 그러한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직업소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소년운동의 차원에서 형성된 근대 청소년소설에는 '학생'보다 '직업소년'의 비율이 높다. 그것은 당시 사회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가들의 모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소설에 등장하는 '직업소년'은 당대 직업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작가들의 의도와 욕망이 작용하여 형성된 인물로서 그를 통해 일제 강점기 '직업소년상'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은 '애호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이상과 '부모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의 모순에서 '직업소년'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생겨난다. 그들은 직장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사업주나 다른 어른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가해자(경쟁자)로 인식되지만, 서술자는 주로 어른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소년의 사건을 동정적 어조로 서술함으로써 소년을 피해자(희생자)로 인식하도록 한다. 한편 직업소년은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

29) 송근우의 <이천냥 빚으로 대신 가는 언넌이>(『어린이』, 1926.3.1.)와 이동규의 <곡마단>(『신소년』, 1931.2.4,5) 등 그런 현실을 제재로 한 다수의 작품이 있다.

한 시기이지만 고아이거나 병들고 가난한 편모, 편부의 자식이라는 가정환경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서술자는 직장 이야기에서 직업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와 달리, 가정 이야기에서는 직업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한다. 또 직업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나, 서술자는 당시 학교 교육의 환상과 허위를 깨고, 야학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직업소년이 학생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역설한다.

요컨대 근대 청소년소설에 제시된 ‘직업소년’은 시대와 사회의 희생자이지만,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한 처지로 합리화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보호와 성장의 문제보다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사명감 있게 해 나갈 과업이 부여된다. 한마디로 근대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직업소년상’은 무기력한 어른들의 대리자로 볼 수 있다. 이때 어른들의 무기력함은 민족적, 계급적 폭력으로 합리화되어 그에 대해 성찰하고 비판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업은 어른 중심의 일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태도는 작가인 청년 세대가 근대 초기에 그들의 부모 세대를 비판하며 가정에서 해방되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태도와 모순된다. 또 ‘직업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의 대안이 우선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소년을 대하는 타인들의 동정 및 직업소년 자신의 의지와 노력 등 개인 도덕의 차원에서만 대안이 제시된다. 그것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일제 당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 터인데, 이러한 점에서 또한 당시 무기력한 어른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부록〉 근대 청소년소설 중 '직업소년' 등장소설 목록

연도	작가	작품 제목	발표지	발표일	직업	
1919	방정환	(단편소설) 금시계	신청년	1	급사	
	잔물	(학생소설) 졸업의 일	신청년	12	신문배달	
1920	유종석	어린 직공의 사	동아일보	4. 2	직공	
		숨은 죄	신청년	1920. 8	점원	
1923	몽견초	(사진소설) 영호의 사정(기2)	어린이	10. 15	급사	
		영호의 사정(기3)	어린이	11. 15		
		영호의 사정(끝)	어린이	12. 23		
1924	잔물	(소년소설) 졸업의 날	어린이	4. 19	신문배달	
	정인호	(애화) 고아의 죽음	어린이	11. 1	성냥팔이	
1925	잔물	(실화 수재미담) 눈물의 모자갑	어린이	8	급사	
	몽견초	(소년애화) 절영도 섬 넘어	어린이	10	급사	
	권경완	(소년소설) 아버지	신소년	7, 8, 9	급사	
	백악	(비애소설) 희망 만흔 빠이요령	반도소년	3	직공	
1926	문인암	(소년소설) 야구빵장사	어린이	12, 15	빵장수	
	권경완	(소년소설) 마지막 우습	신소년	2, 3, 4	비웃장수	
	점몽 (蝶夢)	(소년소설) 무궁화두송이	별나라	12	점원	
	진희복	(애화) 일륜화	새벗	2	신문팔이	
1927	몽견초	(소년미담) 동무를위하여	어린이	2	신문팔이	
	연성흠	(애화) 어린 신문팔이	별나라	6	신문팔이	
		(소년소설) 눈물의 은메달	어린이	7	양잠노동	
	마해송	(연작소설) 오인동무 제1회 결의 남매	어린이	3	직공	
	고한승	제2회 순회는 어디로?	어린이	5		
1928	진장섭	제4회 의외의 편지 두 장	어린이	7		
	손진태	제5회 순회는 다시 어디로?	어린이	10		
	정인섭	제6회 꿈인가-참인가?	어린이	12		
	흰새	(소설) 형제	신소년	3-5	농군	
	소석	황파를 넘어서 3회	새벗	11	시청 출장소임시고	
	김순옥	(소년소설) 남매의 운명	소년계	3	신문팔이, 빵장수	
	임우재	막돌이	중외일보	11. 12- 17	머슴, 아이보개	
	1928	최진형	(연작소설) 오인동무 제7회 북해도별판에서	어린이	3	
		정병기	제8회 반가운소식	어린이	9	
		송영	엇던 나무꾼 아해의 일생	어린이	3	나무꾼
최의순		(소녀란 소녀소설) 옥집이의 마조막 하 소연	어린이	7	아이보개	
백시라	(소녀소설) 곡마단의 두 소녀	어린이	12	곡마단		

					묘기꾼
	이명식	인호	중외일보	3. 21-29	두부장수
		고국을 등지고 - 어떤 소년의 수기	중외일보	10. 17-23	머슴
	장선명	국경을넘어서 - 어떤 소년의 수기	중외일보	5. 1-5	머슴
	유종원	참된 동무 - 공장 소년의 수기	중외일보	6. 23-26	직공
동정		중외일보	7. 20-22	식모	
1929	몽견초	(사진소설) 금시계	어린이	1, 2	급사
	이태준	(소설가튼이야기) 불상한 소년미술가	어린이	2	미술가
	안운파	(소년소설) 달도운다	별나라	4·6·10	만주장수
	이정호	(소년소설) 귀여운희생	어린이	2	점원
	김영팔	소년직공	어린이	5	직공
	최병화	학생빵장사	소년조선	6	빵장수
	연성흠	창수의 지각	어린이	5	우유배달
		(소설) 희망에 빛나는 소년	어린이	10	폐지수집
	박승진	산기슭	어린이	9	농군
	마니산인	눈물의 졸업장	소년조선	8	직공
	남궁량	빈민굴의 피인 꽃	조선일보	11, 15	직공
	안평원	(소설) 소년직공수기	신소년	12	직공
	성경린	해뜨기전	중외일보	4. 9-10	직공
이명식	소년직공	조선지광	6	직공	
1930	이태준	(입지소설) 눈물의 입학	어린이	1	여관급사, 신문팔이
	이명식	봄!봄!봄!	어린이	4	농군
		인호	조선일보	4	점원, 두부장수
		방랑소년	어린이	5	화점민
	민봉호	(소년소설) 영화의 녀두리	어린이	5	신문팔이
		(소녀소설) 순이의 설음	어린이	8	식모
	최병화	(소년소설) 누님의 얼굴	어린이	7	직공
		(소년소설) 눈보라치는 날	어린이	12	짚신팔이
	김재철	(단편소설) 유리화병	어린이	5	식모
	이주홍	(소설) 아버지와 어머니	신소년	1	머슴
		(소년소설) 아버지와 어머니(속)	신소년	2	
	태영선	(연작소설) 불탄촌 제1회	신소년	5	농군
	이동규	제2회	신소년	6	
	성경린	제3회	신소년	8	
	이동규	(소년소설) 두 가지 정의	신소년	8	직공
안운파	(소년소설) 호떡선생	별나라	6, 7, 10, 1931.	직공	

				1·2, 5	
	이명식	(바다소설) 편주를 저어서	별나라	7	직공
	윤기정	(소설) 농군의 아들	별나라	10, 11	농군
	연성흠	(소년소설) 참된 희생(2)	어린이	6	점원
		(소년탐정소설) 용길의 기공	어린이	9	급사
	백학서	(소년소설) 이못집	어린이	12	머슴
	이동우	(소년소설) 첫달	어린이	12	농군
	강노향	(소년소설) 여명	신소년	4	나무꾼, 직공
		여명(2)	신소년	5	
		여명(3)	신소년	6	
		여명(완)	신소년	7	
		(소년소설) 산에 가는 사나회	신소년	11	농군
	노양근	(소년소설) 광명을 차져서	신소년	3	농군
	오경호	(소년소설) 그 소년의 편지	신소년	6	신문배달
	김예지	(소년소설) 삼남매를 울리든 날	신소년	6	직공
	현동엽	(소설) 백삼포여공	신소년	10	직공
	김유시	(소년소설) 감음	신소년	7	농군
1931	엄홍섭	(연재소설) 옴바와 누나	별나라	4, 5, 6, 7·8, 9	직공, 신문배달
	김명겸	(소년소설) 소년직공	별나라	6	직공
	송영	실업한 아버지들	별나라	6	직공
	구지회	참된 배신자(3)			직공
		참된 배신자(4)			
		(소년소설) 흥내쟁이	신소년	10	직공
	김명겸	(소년소설) 셋의 마음 한마음	별나라	9	직공
	이동규	(장편소년소설) 곡마단 제1회	신소년	2	곡마단 묘기꾼
		(장편소년소설) 곡마단 제2회	신소년	4	
		(소년소설) 곡마단(완)	신소년	5	
	나무꾼	별나라	9	나무꾼	
1932	노양근	(소년소설) 칩뿌리 케는 무리들	어린이	6	농군
	이동우	(소설) 이 빠진 낮	어린이	8	농군
	백학서	(소년소설) 출가자의 편지	어린이	7	회사원
	정홍필	(소설) 흙 한 짐 15세 소년의 수기	어린이	7	흙짐 인부
	정윤희	일전 때문에	어린이	8	점원
		(소년소설) 형제는 만났다	어린이	9	농군
	김재형	(용장소설) 홍수가 든 날	어린이	8	머슴
	이동규	(소년소설) 고향	신소년	1	농군
	승응순	(소년소설) 꿈?	신소년	1	직공, 점원
	정청산	(소설) 고만두자	신소년	7	떡장수
	성경린	(소설) 경순의 병	신소년	10	관광 안내원
	홍복원	(소설) 수첩 일명폭풍우후일담	신소년	9	직공
		수첩(2)	신소년	10	

	수첩(3)	신소년	11	
	안평원 (소년소설) 첫너름	별나라	7	농군
	홍은표 (소설) 직공위안회	신소년	4	직공
	이청송 (소년소설) 새 결심	신소년	4	농군
	윤철 (장편소설) 바닷가의 농촌 제2회	신소년	6	농군
	김소엽 (소설) 형과 아우	신소년	7	직공, 급사
	김우철 (소년소설) 눈 오시는 밤	별나라	1	농군
	상호의 꿈	신소년	2	직공
	등피알사건	신소년	4	농군
	동정 매달	신소년	9	직공
	구직회 (소설) 가마장	별나라	2·3	가마팔이
	홍구 (소년소설) 도야지밥 속의 편지	별나라	2·3	직공
	(소년소설) 탄갱	신소년	10	광부
	박일 (소년소설) 도련님과 미(米)자	별나라	4	머슴
	한인택 적은 女工(여공)	비판	4	직공
	박영준 소녀공	전선	5	직공
1933	이정호 (소년소설) 군밤장사	어린이	2	장수
	(소년장편연재소설) 등정가/ 협의	어린이	2	간호원
	강남춘 (소년장편연재소설) 고헌생	어린이	5	급사
	홍구 채석장	신소년	2	석공
	성경린 (소설) 제일보 후부	신소년	5	직공
	승효탄 (장편연재소년소설) 남매 제2회	신소년	2	점원
	제3회	신소년	3	
	이청송 (소년소설) 나무하는 동무들	신소년	3	나무꾼
	이동규 (벽소설) 어린이날	신소년	5	직공
	김소엽 (소설) 도라온 태성이(후편)	신소년	7	농군
	박맹 (소년소설) 목동	신소년	8	목동
	박태원 영수증	매일신보	11. 1-11	점원
	안평원 (소설) 나무꾼의 쉬는 곳	별나라	4·5	나무꾼
	(소년소설) 공장이 파한 뒤	신소년	3	직공
	김우철 (소년소설) 8월 15일	별나라	8	농군
	(소년소설) 설달금음날	별나라	12	농군
	안희남 병든 소녀	신동아	6	버스안내원
	이동규 (자유연작장편소설) 동맥 제1회	신소년	2	직공, 버스안내원
	북원초인 (소년소설) 그 뒤의 소식 - 「첫가을」의 속편	신소년	2	농군
	전탁 월급날	신소년	3	직공
	계광환 (추천소설) 동무왕(王)군	신소년	4·5	광부
	최병화 (학교소설) 내 힘과 맘	별나라	1	신문배달
	안평원 (소년소설) 설한풍의 밤	신소년	3	농군
	안운파 (소설) 협산을 밟고	신소년	4·5	나무꾼

	엄홍섭	(소설) 평이 4(중편)	별나라	10·11	그릇배달, 아이보개
1935	홍구	(소설) 도망간 간난이	별나라	1·2	식모
	노양근	열세동무	동아일보	7. 2-8, 28	농군
	김유정	(농촌소설) 동백꽃	조광	5	농군
1937	채만식	(소년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장편 제1회	소년	4	머슴
		제2회	소년	5	
		제4회	소년	7	
		(소년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장편 종편	소년	8	
	김복진	(소녀소설) 봉뚝섬 1	소년	8	곡마단 묘기꾼
		제2회	소년	9	
		제3회	소년	10	
		마지막치	소년	12	
	김남천	소년행	조광	7	급사
	1939	현덕	(소년소설) 군밤장수	소년	1
(소녀소설) 잃었던 우정			소년	10	승강기 안내원
김영수		(장편소녀소설) 네거리의 순이 제1회	소년	8	꽃말이
		제2회	소년	9	
		제3회	소년	10	
		제4회	소년	12	
김영수		(장편소녀소설) 네거리의 순이 제5회	소년	1	
		제6회	소년	2	
		제7회	소년	3	
		제8회	소년	5	
		(장편소녀소설) 네거리의 순이 제9회	소년	6	
김복진		(소녀소설) 물레방아 도는데 1	소년	8	정미소
최병화		(연재소설) 꿈에 보는 얼굴 제1회	소년	9	농군
		제2회	소년	10	
		제3회	소년	11	
		제4회	소년	1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증외일보』 『반도소년』 『별나라』 『새벗』 『소년』(조선일보사) 『소년계』 『신소년』 『신청년』 『어린이』 『조광』

2. 논문과 단행본

김용희,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청소년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전상진,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像)』,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2006, 5-35쪽.

주일란, 『김남천 소설 연구 - 해방 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_____,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0.

가와하라 카즈에, 『어린이관의 근대』, 양미화 옮김, 소명, 2007.

필립 라이스, 『청소년 심리학』,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편역, 시그마프레스, 2001.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Labor represented in Modern Juvenile Novels of Korea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like today's juvenile, the Korean juveni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a laboring being and they were called 'Juvenile Labor'. Most protagonists of modern juvenile novels were working juveniles rather than students. It is safe to say that it was not only the reflection of social contradiction but also the result of pursuing its imaginary solutions. Focusing on i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spects of juvenile labor and the descriptive manner of it in modern juvenile novels, and considered the inconsistency and limit of juvenile image depicted by contemporary authors.

In the process I witnessed the ambivalent view on the juvenile labor. In terms of idealism, juveniles are ones who should be taken care of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in schools. On the other hand, in the real world they are the breadwinners without their parents. As a laborer in the workplace, they are seen as an opponent, a threat to employers or adult labor. Nevertheless, the narrator forces us to see them as a victim by describing the defeated juveniles in a competition with adults with a sympathetic tone. At the same time, though they still need their parents' care, they are called for a role of supporting his family on the ground that he is an orphan or has a single parent with illness and poverty. Whereas the narrator insists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 labor in the workplace, he puts an emphasis on a role of juveniles as a supporter of his family. In addition, though it was thought that working juveniles were inferior to students only because they didn't go to school, the narrator asserts that they are superior to students, pointing out the illusion of school education and suggesting an alternative such as evening classes.

In short, even if the working juveniles shown in modern juvenile novels are the victims of a society and an era, they also hold a proud and desirable position in the social condition where both national contradictions and class contradictions coexist. Furthermore, they put aside the protection and growth for themselves and are

entrusted with the task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adults. In other words, the image of working juveniles represented in juvenile novels is seen as that of the delegate of helpless adults.

(Key Words: Japanese Colonial era, juvenile novel, juvenile labor, child protectionism, national contradiction, class contradiction, ambivalent view, the delegate of adult)

논문투고일 : 2016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8월 3일

수정완료일 : 2016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7일